

태풍 재해 대책과 개인 안전 (일본 기상청 / 일본 정부)

[태풍 재해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]

>> 거주지역에 재난상황이 발생할 시에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
- 하나는 집/건물 안에 머물고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. 강이나 운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. 안전을 위협 할 수 있습니다.

>>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
- 재해 동안 지하실에 있는 전기/기계실이 범람하여 건물의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.

[태풍 재해 발생 0~6 시간전 조치]

>> 당신의 지역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을 가정하십시오.
폭풍 해일이나 홍수의 위협이 있는 경우, 일본 기상청과 일본 정부가 발행 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즉시 대피 할 준비를 하십시오.

>> 지하에 있을 시에 조치해야 할 주의사항
지하층(지하철, 쇼핑몰 및 지상 층 밑에 있는 주차장)은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. 지하층에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.

[태풍 재해 6~12 시간 전에 취해야 할 조치]

>>정부가 '대피 권고'를 발행하면 단체로 이동하십시오.
'대피 권고'가 발급되면 집을 잠그고 이웃과 함께 걸어서 피난할 것을 요청하십시오. 운동화나 산악회 등의 신발이 범람한 길 위를 걷는데 적합합니다.

>> '피난 준비 정보'가 발급되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십시오.
'피난 준비 정보'가 발급되면, 이동 능력이 약한 사람 (예: 노인, 장애인, 유아가 있는 가족 등)을 도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십시오

(예 : 고지대의 대피소, 친척 집, 공공 복지시설 등)

[태풍 재해 발생 12~36 시간전 조치]

>> 손전등과 음식 준비

태풍이 거주지역을 지나갈 때, 수도 및 전기 공급이 중단될 확률이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 준비하기 위해 집안에 손전등과 라디오(정보 수신 목적)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또한 장을 못볼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서 며칠 동안 생존하기 위한 음식과 물을 저장하십시오.

>> 가정 용품은 높은 곳으로 옮기십시오.

가정 용품이 젖는 경우 고장 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가정 용품은 더 높은 곳으로 옮겨 홍수로부터 보호하십시오.

[태풍 재해 발생 36~48 시간전 조치]

>> 집이 낮은 곳에 있을 경우 모래 주머니를 사용하면 홍수를 막거나 홍수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모래 주머니 유무를 알아 보려면 지방 정부 관청에 문의하십시오.

모래 주머니의 대안으로 플라스틱 봉투에 물을 채우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고정하거나 골판지 상자에 물이 담긴 페트병을 채워 임시 수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>> 실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배수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.

배수가 막히면 도로와 정원에 물 웅덩이가 생겨 지하실의 주차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 베란다의 배수관이 쓰러진 나뭇잎과 먼지로 막히면 지붕 아래 공간과 건물 2층 또는 그 이상에서도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배수관의 상태를 일상 점검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.

>> 지붕 타일과 골판지 지붕을 보강하십시오.

지붕 타일이 바람에 날리면서 몸에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지붕에 누수가 있는지 또는 건물 외벽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. 바람에 날려 버릴 수 있는 다른

물건 (TV 안테나, 벽, 붕괴 될 수 있는 벽, 자전거, 화분 등)이 있는 경우에는 로프로 고정 시키거나 집안으로 가져와야 합니다.